



클로드 모네의 베니스에 경의를 표하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시리즈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정교한 수작업으로 장식된

세 가지 새로운 타임피스

주요 특징:

- 위대한 인상파 거장이 본 베니스에 대한 오마주
-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노하우를 선보이는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의 리베르소

올해 9 월 베니스에서 열리는 호모 파베르 비엔날레(Homo Faber Biennial) 전시에 참여하는 예거르쿨트르는 세 가지 새로운 리미티드 에디션인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타임피스를 선보이며 개최 도시에 경의를 표합니다. 각 작품의 케이스백은 클로드 모네(Claude Monet)의 베니스 그림 중 하나를 미니어처로 재현함으로써 리베르소가 예술적 표현을 담아내는 매력적인 캔버스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위대한 인상파 거장 클로드 모네가 포착한 베니스에 대한 오마주

생애 말년에 그린 모네의 '베니스 시리즈'는 1908 년 가을, 그가 아내와 *라 세레니시마*(La Serenissima)에 도착했을 때 예술가를 단번에 사로잡았던 베니스의 건축물과 독특한 빛을 절묘하게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그리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라 말했던 모네는 곧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2 곳의 다른 장소를 선택한 그는 변화하는 빛을 포착하기 위해 하루의 다양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10 주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37 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를 기리는 정교한 수공예 작품

다양한 형태의 공예에 경의를 표하며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호모 파베르의 사명은 위치메이킹 공예 기술뿐만 아니라, 파인 위치메이킹과 관련된 예술 공예 기술도 지원하려는 예거 르쿨트르의 헌신을 충실히 반영합니다. 그랑 메종은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베니스 시리즈' 타임피스를 통해 호모 파베르와 공유하는 사명에 찬사를 보내는 동시에, 미니어처 페인팅과 에나멜링, 기요세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매뉴팩처 메티에 라르™(진귀한 수공예) 아틀리에의 뛰어난 재능과 기술을 선보입니다.

케이스백을 장식하는 데 있어 수많은 도전 중 첫 번째는 3cm²의 표면에 65 x 92cm 이상의 원본 작품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네 그림의 모든 디테일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것은 소형화의 놀라운 위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에나멜 장인은 임파스토 기법(모네가 지베르니에 있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완성할 때 사용한 두꺼운 물감의 질감 효과)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순간적인 빛과 분위기가 선사하는 원작의 환상적인 풍경을 재현해야 했습니다. 원하는 컬러의 강도와 깊이감을 얻으려면 베이스 층 3 겹, 페인팅 층 4 겹, 반투명 '아교' 층 7 겹 등 총 14 겹의 에나멜이 필요했으며 최대 800°C 에서 최대 15 번의 개별 가열 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반투명 컬러 에나멜 아래 수공 기요세 패턴으로 장식된 세 개의 다이얼은 케이스백의 미니어처 페인팅에 예술적으로 부응합니다. 최대 5 겹의 에나멜을 입히고 최대 800°C 에서 6~7 번의 개별 가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에나멜링에만 다이얼 하나당 8~9 시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과제는 인덱스를 완벽하게 적용하고(깨끗한 에나멜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야 함), 레일웨이 미닛 트랙 레지스터를 옮겨 놓는 것이었습니다. 각면 처리한 아플리케 아워 마커와 도피네 핸즈가 장식된 리베르소 트리뷰트 디자인 코드의 간결함은 이러한 장식의 아름다움에 완벽을 더해줍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비전이 더해진 세 점의 유명 작품

황혼에 물든 산 조르지오 마조레 성당(San Giorgio Maggiore at Dusk). 호모 파베르 비엔날레의 무대로 선정된 산 조르지오 마조레(San Giorgio Maggiore) 섬은 산마르코 광장(St Mark's Square) 맞은편에



위치하며 모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섬 뒤편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그린 이 풍경에서는 빛과 컬러, 반사가 강조되어 건물은 구성의 중심이 되는 실루엣으로 축소됩니다. 모네의 유명한 그림을 미니어처로 재현하려면 약 70 시간의 세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이얼은 케이스백 페인팅의 하늘색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블루톤의 그랑 퓨 에나멜이 특징입니다. 리베르소 아르데코 디자인의 기하학적 라인을 반영한 헤링본 기요세 패턴은 120 개의 개별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라인은 세 번의 선반 작업을 거쳐 총 360 개의 라인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 작업은 완료하는 데 8 시간이 소요됩니다.

베니스의 대운하(The Grand Canal Venice). 놀라운 깊이감과 움직임으로 대운하를 가로지르는 이 매혹적인 풍경은 오후에 그려졌습니다.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Santa Maria della Salute) 성당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며, 흐릿한 빛의 효과로 건축적인 디테일들이 더욱 돋보입니다. 이 걸작을 충실히 재현한 케이스백은 약 70 시간에 달하는 에나멜 작업이 필요합니다. 8 시간의 세심한 작업을 거쳐 탄생한 다이얼의 물결 패턴의 수공 기요세는 모네의 그림에 묘사된 수면의 반사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파도의 시각적 효과는 물과 어울리는 부드러운 그린 톤의 반투명 그랑 퓨 에나멜 층으로 더욱 극대화됩니다.

총독의 궁전(The Doge's Palace). 오전 8 시에 대운하 중앙의 곤돌라에서 그린 총독 궁전의 풍경은 아침 햇살이 물에 반짝이는 모습을 아름답게 연상시킵니다. 모네는 친구에게 “궁전은...분위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 그림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재현하기 위해 예거 르쿨트르의 에나멜 장인은 70 시간 가까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이얼의 마름모꼴 기요세 패턴은 다양한 각도로 회전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명암을 만들어내며 모네가 매료되었던, 하루 중 다양한 시간대에 물에 반사되는 빛의 효과를 반영합니다. 여러 층의 반투명한 블루 그랑 퓨 에나멜로 더욱 강조된 기하학적 패턴은 981 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라인은 5 번의 선반 작업을 거칩니다. 수동 선반을 사용하여 총 4,905 번 진행되는 고도로 숙련된 작업에는 8 시간이 소요됩니다.

각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베니스 시리즈'는 호모 파베르 비엔날레의 개최 도시를 비롯하여 기요세, 에나멜링, 미니어처 페인팅 등의 장식 공예와 파인 워치메이킹의 탁월한 결합에 찬사를 보냅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베니스 시리즈' - 산 조르시오 마조레 성당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크기: 45.6 x 27.4mm, 두께 9.7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헤링본 기요세,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그랑 퓨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

방수: 3bar

스트랩: 블랙 악어 가죽

제품 번호: Q39334M4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베니스 시리즈' - 대운하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크기: 45.6 x 27.4mm, 두께 9.7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물결 기요세,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그랑 퓨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

방수: 3bar

스트랩: 블랙 악어 가죽

제품 번호: Q39334M5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베니스 시리즈' - 총독의 궁전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크기: 45.6 x 27.4mm, 두께 9.7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마름모꼴 기요세 패턴,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그랑 퓨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

방수: 3bar

스트랩: 블랙 악어 가죽

제품 번호: Q39334M6

호모 파베르 소개

Homo Faber 2024: The Journey of Life 는 9 월 1 일부터 30 일까지 베니스에서 개최됩니다. 현대 장인정신을 기리기 위해 미켈란젤로 재단(Michelangelo Foundation for Creativity and Craftsmanship)이 주최하는 호모 파베르 비엔날레는 올해 제 3 회를 맞이합니다. 이 재단은 스위스에 기반을 둔 비영리 기관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 현대 공예가를 후원합니다. [homofaber.com](https://www.homofaber.com)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